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77-3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기획: 코로나19 4대 이슈(거리두기, 재난지원금,
마스크, 등교 개학) 인식조사

2020. 05. 13.

담당자 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오승호 부장

전화 | 02-3014-0167
e-mail | shoh@hrc.co.kr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구정태 대리

전화 | 02-3014-1040
e-mail | jtkoo@hrc.co.kr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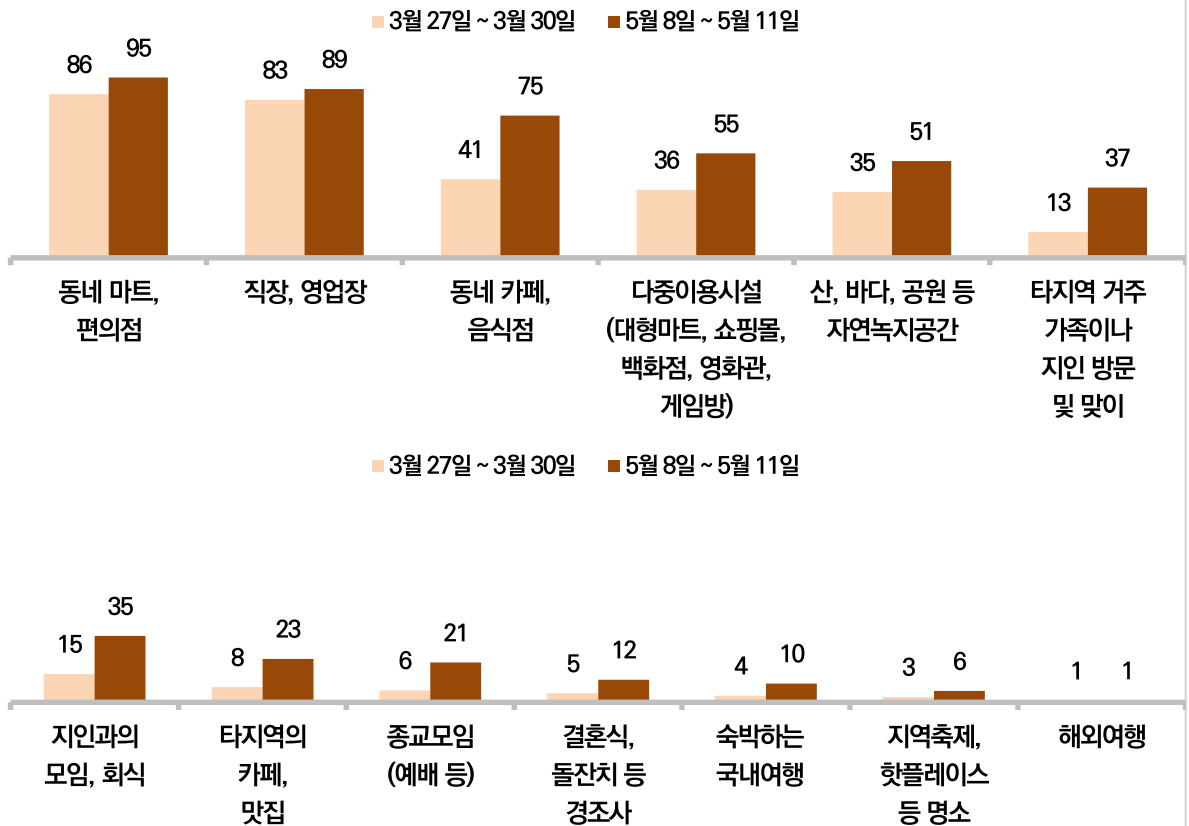
첫 번째 이슈,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

최근 2주간 외부활동 경험, 두달 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

지난 3월 27일 ~ 30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동네 마트나 편의점, 직장이나 영업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곳들만 직전 2주 사이 방문했다는 응답이 80%를 상회하였고, 다른 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%를 밑돌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.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활동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. 동네 카페나 음식점, 다중이용시설, 자연녹지공간을 4월 25일 이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%를 넘었고, 타 지역 지인이나 가족 모임, 지인과의 모임 및 회식 경험 역시 지난 조사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.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앞둔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이 확인되었다.

직전 2주간 외부활동 경험, 3월 말 조사보다 크게 늘어나

(단위 : %)



질문: 귀하께서는 최근 2주 동안 다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?

비고: “있다”, “없다”로 묻고 “있다”만 그래프에 제시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3.27 ~ 03.30 / 2020.05.08 ~ 05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1

첫 번째 이슈,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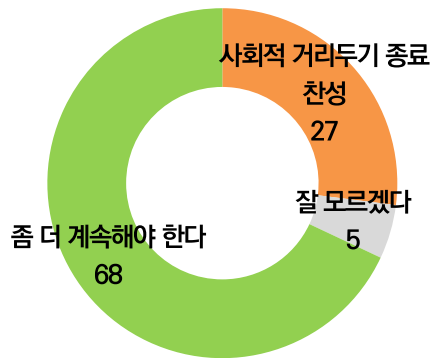
여러 조건은 갖추어졌지만...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찬성 27%에 그쳐

5월 5일로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,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%에 그쳤다. 반면 좀 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68%에 달했다.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,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

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.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진술에는 75%가,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우수하다는 진술에는 84%가 동의하였다.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에 동의하는 의견도 다수였다. 다만,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만 찬반 의견이 갈렸다.

27%만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찬성

(단위 : %)



질문: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 종료되었고,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

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

■ 그렇다(매우+그런 편) ■ 그렇지 않다(전혀+그런 편)



질문: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, 다음 각각의 진술에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5.08 ~ 05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2 두 번째 이슈, 정부 긴급재난지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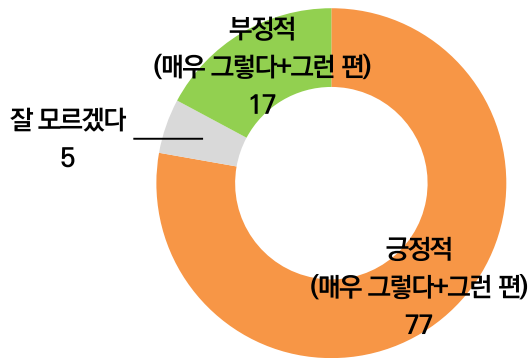
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긍정평가 77% 사용범위 제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

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5월 11일 시작되었다. 이번 조사에서 지급 금액, 방법,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긍정평가는 77%로 나타나,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.

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‘온라인 사용 불가(36%)’, ‘사용지역 제한(34%)’, ‘사용업종 제한(31%)’ 등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.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(172명) 가운데에는 ‘사용업종 제한(42%)’, ‘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(42%)’, ‘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도 지급(41%)’ 한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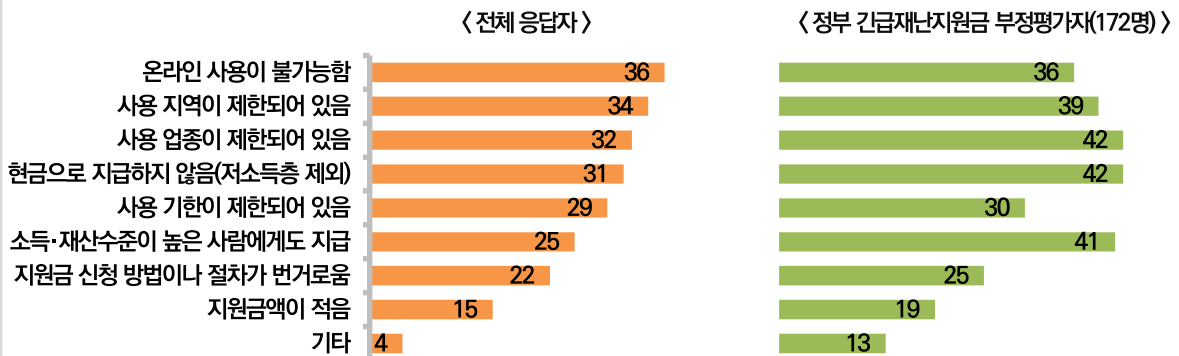
정부 긴급재난지원금, 77%가 긍정적으로 평가

(단위 : %)



질문: 지급 금액, 방법,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,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온라인 사용 불가, 지역 제한, 업종 제한 등 사용범위 제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



질문: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,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모두 선택해 주세요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5.08 ~ 05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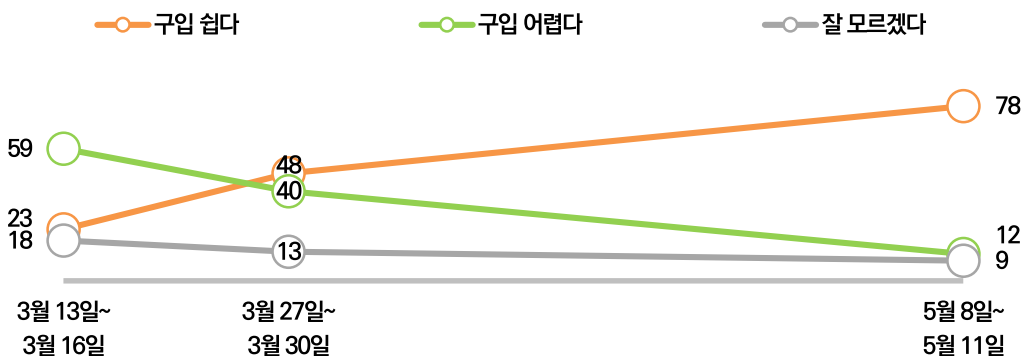
3 세 번째 이슈, 공적마스크 구입

공적마스크 구입 쉽다 78%, 마스크 5부제 시행 직후보다 55%p 상승 마스크 3개 구입은 적당하나, 가격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

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두 달 여가 지난 현재, 공적 마스크 수급은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든 양상이다. 마스크 5부제 실시 직후인 3월 13일 ~ 3월 16일 조사에서는 마스크 구입이 쉽다는 응답은 23%에 불과하였다. 하지만 이후 48%(3월 27일 ~ 3월 30일 조사)를 거쳐, 이번 조사에서는 78%가 마스크 구입이 쉽다고 답하였다.

공적마스크 구입 쉽다 78%, 마스크5부제 시행 직후보다 55%p 상승

(단위 : %)



질문: · (3월 13일 ~ 3월 16일) 마스크5부제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, 마스크 구입에 변화가 있습니까?

· (3월 27일 ~ 3월 30일)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. 마스크5부제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, 마스크 구입에 변화가 있습니까?

· (5월 8일 ~ 5월 11일)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. 공적 마스크 구입이 쉬웠습니까, 어려웠습니까?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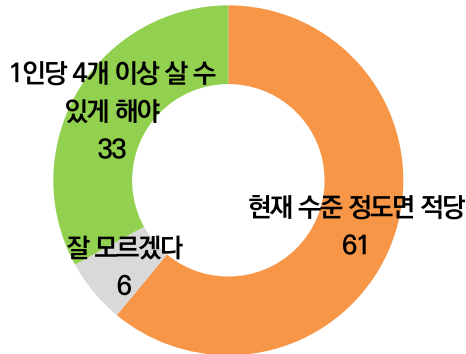
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고 국내 마스크 수급도 안정되면서, 지난 4월 27일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기존 2개에서 최대 3개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. 마스크 구매 수량에 대해 물은 결과, 현재 수준 정도면 적당하다는 응답이 61%로 지금보다 한도를 늘려서 1인당 4개 이상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응답(33%) 보다 높았다.

반면,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. 현재 1개당 1,500원씩은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2%로 현재 수준 정도면 적당하다는 응답(25%)을 훌쩍 뛰어넘었다.

3 세 번째 이슈, 공적 마스크 구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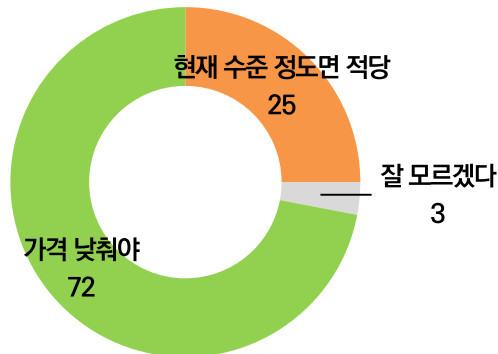
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를 늘리기보다는,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해도 적당하다는 의견 높음

(단위 : %)



질문: 지난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3개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구매 수량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?

마스크 가격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



질문: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개당 1,500원으로, 3개 구입 시 4,500원을 내야 합니다.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5.08 ~ 05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4 네 번째 이슈, 등교 수업 시행

등교 수업 찬성 44%, 더 늦춰야 한다 4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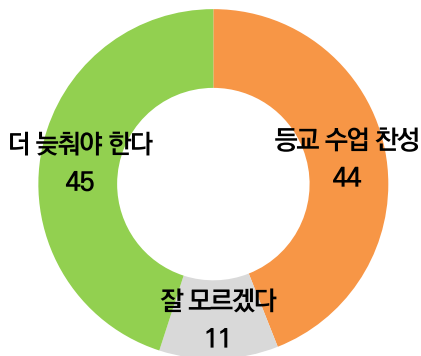
학교와 교사의 준비는 잘 되어 있으나,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높아

교육부는 지난주,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.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되자, 지난 월요일 등교 수업을 1주일씩 늦추겠다고 발표하였다. 본 조사는 등교 수업 연기가 결정되기 전에 진행하여, 최초 계획인 5월 13일 등교 수업 시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.

조사 결과, 등교 수업 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%, 더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45%로 의견이 갈렸다. 영유아와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(253명) 역시 찬성 51%, 늦춰야 한다 43%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. 연령대가 낮을수록 등교 수업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,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(170명) 역시 등교 수업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56%로 찬성한다는 의견(32%) 보다 우세하였다

5월 13일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 시행, 찬성 44%, 늦춰야 한다 45%

(단위 : %)



연령대가 낮을수록 등교 수업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

(단위 : %)

구분	사례수(명)	등교 수업 찬성	등교 수업 더 늦춰야 한다	잘 모르겠다
전체	(1,000)	44	45	11
18-29세	(183)	28	62	10
30-39세	(160)	41	50	8
40-49세	(192)	47	45	9
50-59세	(197)	49	39	12
60세 이상	(268)	51	34	15

질문: 교육부는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등교 수업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5.08 ~ 05.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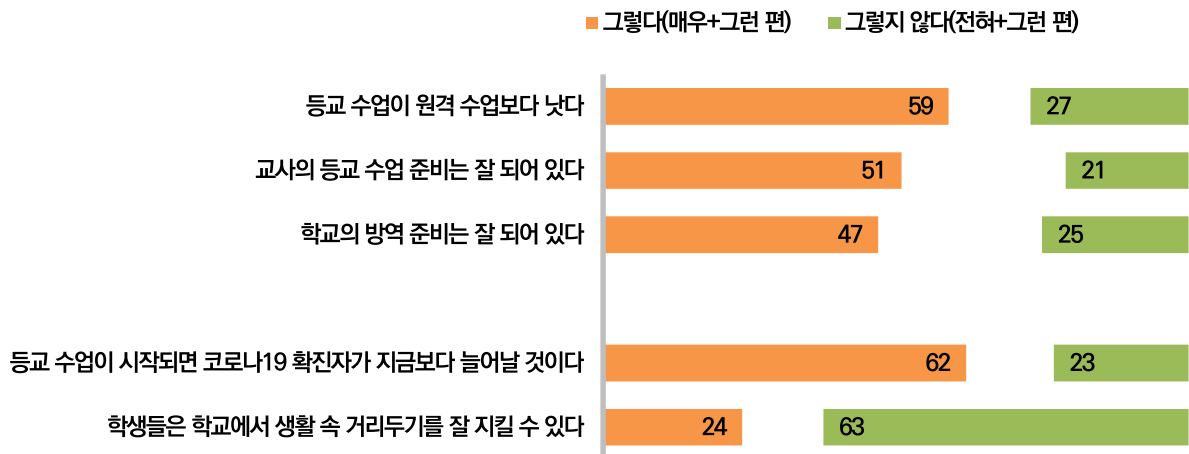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4 네 번째 이슈, 등교 수업 시행

등교 수업 시행을 위한 조건에 대해 물었다. 학교의 방역 준비와 교사의 수업 준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우세하였다. 등교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더 나은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긍정(59%) 응답이 높았다.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없다는 걱정(63%), 밀접 접촉이 늘어나면서 등교 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(62%) 또한 높았다.

학교, 교사의 등교 수업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만,
등교 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수준

(단위 : %)



질문: 등교 수업 시행과 관련해, 다음 각각의 진술에 어떤 의견이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0.05.08 ~ 05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 분	내 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(20년 4월 기준 약 49만 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1,479명, 조사참여 1,219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67.6%, 참여대비 82.0%)
조사일시	• 2020년 5월 8일 ~ 11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 여輿론論

40 YEARS Hankook Research

